

열매가 예쁜 감탕나무속 (Genus *Ilex*) (1)

L A N D S C A P I N
G



실장 김 종 근
(들꽃수목원 생태환경농업연구소)
(Homepage: www.plusgarden.com,
E-mail: iloveplant@hotmail.com)



▲ 눈과 어울리는 호랑가시나무 열매(*Ilex cornuta*)

연말연시가 되면 생각나는 열매가 있다. 바로 “사랑의 열매”이다. 이 사랑의 열매는 호랑가시나무의 붉은 열매에서 유래되었는데, 뽕족뽕족한 잎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쓰셨던 가시 면류관에, 붉은색 열매는 흘렸던 보혈에 비유가 되어 사랑의 심벌이 되었다 한다.

중국에서는 악귀가 여자와 어린이를 뺏어갔다는 전설에서 음력 2월 4일 호랑가시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정어리의 머리를 꿰어 처마 끝에 매달아 놓는데 이렇게 하면 악귀가 겁을 먹고 도망간다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호랑가시나무의 잎 끝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서 호랑이가 등이 가려울 때 등을 비벼 긁는다고 하여 호랑이등굄개나무라고도 부른다.

감탕나무속(*Ilex*)은 감탕나무과(Aquifoliaceae)의 주요 속으로 영명으로는 Holly라고 부른다. 세계적으로 감탕나무속(*Ilex*) 식물은 온대, 아열대, 열대지방을 중심으로 약 80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는 감탕나무(*Ilex integra*), 호랑가시나무(*I. cornuta*), 팡팡나무(*I. crenata*), 줌팡팡나무(*I. crenata* var. *microphylla*), 먼나무(*I. rotunda*), 대팻집나무(*I. macropoda*), 민대팻집나무(*I. macropoda* var. *pseudomacropoda*), 완도호랑가시나무(*I. x wandoensis*)로 총 5종 2변종 1교잡종 등 8종류(Taxa)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 흰색 무늬 잎(Ilex aquifolium 'Silver Queen')



▲ 낙엽성 감탕나무속의 열매(Ilex verticillata 'Winter Red')

다. 이중 호랑가시나무는 전북 부안군 산내면 도청리 산 1번지에 그 균락지가 천연기념물 122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 완도호랑가시나무의 잎과 열매(Ilex x wandoensis)

특히 완도호랑가시나무(*Ilex x wandoensis*)는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호랑가시나무(*I. cornuta*)와 감탕나무(*I. integra*)의 자연교잡종으로 천리포수목원의 고 민병갈원장께서 1978년 완도지역의 식물탐사에서 최초로 확인하였고, 그 후 미국호랑가시학회에 보고하여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결국 2002년 *Ilex x wandoensis* Miller & Kim이라는 정식 학명으로 학계에 보고 되었다. 또한 고 민병갈 원장께서 직접 완도호랑가시에서 채집한 씨앗들을 천리포수목원에서 발아시킨 결과 그

실생묘들은 더욱 다양한 형질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 호랑가시학회 전문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충분했다.

우리나라에서의 서식지를 살펴보면 난대 및 온대지역에도 분포하는 낙엽성인 대팻집나무와 민대팻집나무를 제외한 다른 상록성 자생종들은 대부분 남쪽지방의 난대림에 한해서 자생하고 있다.



▲ 호랑가시나무의 노랑열매(Yellow Frs)

감탕나무속 식물은 암수딴그루로 암그루에만 열매가 달리는데, 최근까지 육종된 품종 중에는 흰색, 노란색, 오렌지색, 주황색, 빨간색, 검은색 까지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것들도 있다.

식물의 외부 형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뽕족한 잎이 물푸레나무과 목서속의 식물들과 비슷하게 생

겨서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탕나무속의 식물들은 잎이 어긋나게 붙고, 목서속의 식물들은 잎이 마주나게 붙어서 확연히 구별된다. 꽃은 매우 작아서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벌과 나비 등 곤충들을 많이 끌며 봄부터 이른 여름까지 피는데 보통 꽃받침은 4~8장이고 꽃잎은 3~8장이며 흰색, 크림색, 분홍색, 녹색 등으로 핀다.

보살핌에 있어서는 매력력이 좋아서 강전정에도



▲ 수꽃(*Ilex aquifolium*)

잘 견디는데 독립수로 키울 경우 고사된 가지 외에는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차폐용 생울타리로 이용할 경우 5~6월경에 다듬어 주면된다.

내한성은 강한 편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스스로 거뜬히 겨울을 날 수 있으며, 중부권에서도 짙이나 녹화마대 등으로 월동처리를 제대로 해준다면 겨울을 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뿌리 주위에 우드칩 등을 이용하여 두껍게 깔아주면 보온효과가 뛰어나 겨울철 월동에 한결 도움이 된다.

번식하는데 있어서 보통 파종과 삽목의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감탕나무속의 씨앗은 종자를 싸고 있는 종피에 둘러싸여 있는데 며칠간 물에 담가두면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파종방법은 축축하게 적신 파종용 상토에 씨앗을 적당히 뿌려준 뒤 질석



▲ 호랑가시나무류의 수형(*Ilex x altaclerensis* 'Camelliifolia')



▲ 황금무늬 잎과 열매(*Ilex x altaclerensis* 'Lawsoniana')



▲ 2002년 미국호랑가시학회에 출품된 예쁜 열매들



▲ 큐영국왕립식물원 내 예쁘게 다듬어진 서양호랑가시나무



▲ 2002년 미국호랑가시학회 호랑가시나무 전시품

을 약간 덮어두면 된다. 온도는 약 18~21도 정도 유지시키면 되며, 발아하는데까지는 보통 2~3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고온 및 저온처리를 적절히 해주어 마치 몇 년이 지난 것 같이 하면 좀 더 일찍 발아시킬 수 있다.

기본종이 아닌 재배종의 경우 그 형질을 그대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삽목이며, 이에 적절한 시기는 늦은 여름에서 겨울까지이다. 삽수의 조제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지 끝부분 15~20cm 정도 길이로 마디부분에 약간 걸쳐서 날카롭게 잘라준 후 윗부분 잎을 2~3장정도 남기고 제거하면 된다. 이렇게 조제된 삽수의 잘린 부분을 발근촉진제에 묻히고 삽목상에 꽂은 후 온도를 18~21도 정도로 유지시켜주면 약 6~8주 정도면 발근이 된다. 가능하면 공중습도를 높일 수 있도록 비닐을 씌운다든지 미스트장치를 활용하면 더욱 좋다.

간혹 접목의 방법을 통해서 번식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고접목 등 관상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나 특별히 파종이나 삽목의 방법으로 번식이 힘든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Ilex glabra*, *I. coriacea*, *I. cornuta*, *I. decidua*, *I. vomitoria* 등의 식물과 같이 여러 줄기가 지상에서 올라오는 감탕나무속 식물의 경우는 뿌리나누기의 방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이용적인 측면에서 서구에서는 잎과 열매를 이용하여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얀 눈과 대비되는 빨간색 열매와 윤택이 있는 녹색 잎이 예쁘기 때문이다. 전정에도 강하기 때문에 토피아리나 분재용으로도 이용하며, 잎과 열매에는 두통, 치통, 눈의 충혈 등에 좋은 다양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재로도 이용된다.

다음호에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은 감탕나무속 (Genus *Ilex*) 식물들을 중심으로 언급하려 한다.

● 참고문헌

-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 Fred C. Galle(1997) *Hollies - The Genus Ilex* -. Timber Press.
- John Kelly(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 Reader's Digest(1997) *New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 Flowers*. Reader's Digest.
-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 RHS(2004) *RHS Plant Finder 2004-2005*. DK.
- W.J.Bean(1976) *Trees & Shrubs Hardy in the British Isles II*. John Murray. 